김세진 개인전: 『Still, Body, Still, Breath』 26. 11. 14. – 12. 12.

모든 것을 소진한 순간에도 몸은 남는다. 김세진은 오늘날 젊은 세대가 마주하는 인간관계의 불확실성, 불완전한 노동, 경쟁의 강박과 성장의 압박에서 비롯되는 불안과 미완의 정서를 담담히 드러낸다. 그의 회화는 개인의 서사를 넘어 동시대 삶에서 공유되는 감정과 긴장을 육체의 형상으로 옮긴다.

연속되는 일상과 관계에서 자신을 지탱하던 힘이 어느 순간 한계에 이르러 소진되는 경험을 파고든다. 짙은 검정은 어둠이나 부재의 표시를 넘어 소진된 자리에 몸과 세계의 관계를 이어주던 감각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암시하며, 인물의 형체는 단단한 부피를 유지하면서 빛을 머금고 미세하게 진동하는 듯한 인상을 주며 미묘한 압력과 감정적 소요를 일으킨다.

선명한 방향과 견고한 중심을 잃은 채 부동과 역동 사이에 놓인 신체의 굴곡은 최소의 힘으로 세상의 중력을 견디고 버틴다. 탈진 끝에 소진으로 가닿는 신체의 상태는 고립된 불안에만 머물지 않으며, 끝내 사라지지 않는 것들을 주목하게 한다.

김세진은 무엇이 자신을 지치게 하고, 무엇이 여전히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지를 살핀다. 소진된 몸에 남아 있는 실낱같은 여력과 희미한 기억을 온전히 마주하며, 삶의 변주를 가능케 할 새로운 활력을 모색한다.